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Korea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국제적 표준



통계로 본 양심적 병역 거부

2012년에 배상 결정을 받은 청원인의 수

388명

국제 연합

1980년대 이래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는 것이 UN 인권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2012년에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도 388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제출한 개인 청원에 대한 결정을 통해 한국이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명백히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한국과 관련하여 내린 동일한 취지의 네 번째 결정입니다.

2012년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 결정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내재되어 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과 조화되지 않는 경우 군 복무의 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는 강제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1786/2007, 2012. 10. 25.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채택한 견해

각 국가별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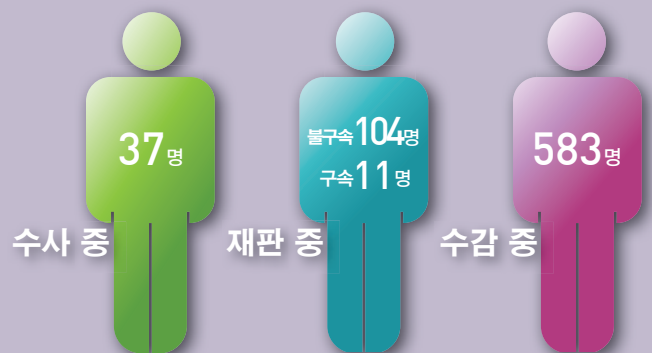
미국 “우리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하여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는 바이다. 현재 700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안 마련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며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민간 대체 복무를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 UN 인권 이사회, 2012 국가별 정례 검토

독일 “우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하여 장기형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려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투옥을 중지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비군사적 복무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UN 인권 이사회, 2012 국가별 정례 검토

현재 수감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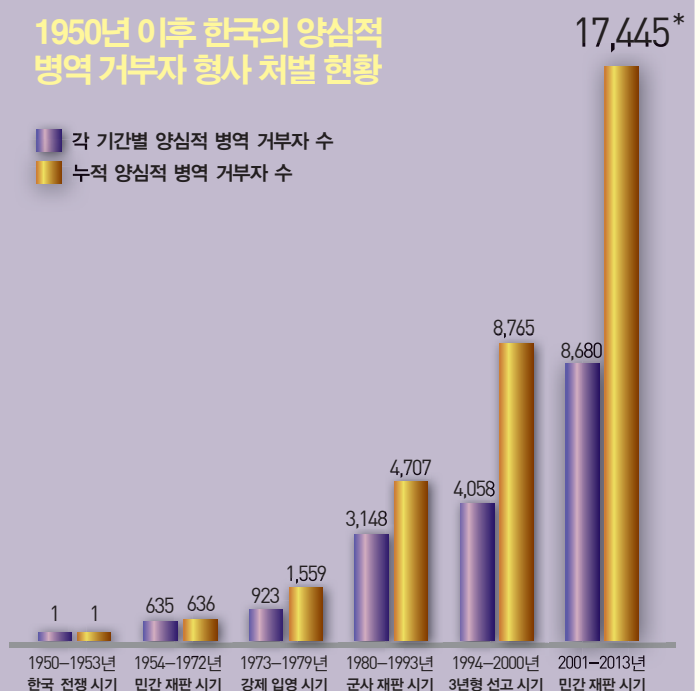
583명

2013년 7월말 현재 현황



1950년 이후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형사 처벌 현황

■ 각 기간별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
■ 누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



*연대 미확인 47명 제외

양심적 병역 거부 역사



사회에 기여하는 길

1950년 이후 형사 처벌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

17,492명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일제 치하(1910~1945년)에서,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전쟁 반대 사상을 전파했다는 주장에 따라 불경죄로 체포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여호와의 증인은 군 복무를 거부하여 심문과 투옥을 당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처벌 형량이 3년에서 10년 이하로 대폭 강화되고 강제 입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명의 증인들이 고문과 구타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의무를 회피하려는 병역 기피가 아닙니다. 이들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장기간 징역형 처벌의 불이익을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현재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마련이 존재하지 않아 매년 약 6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진지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로 형사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된 2001년 이후로도 8000명 이상이 투옥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로 형사 처벌된 사람의 수는 1만 7492명에 달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양심적 병역 거부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 간의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분쟁에 가담하는 것은 예수의 모범에 의해 틀 잡힌 자신들의 그리스도인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체포에 직면해서도, 예수께서는 물리적인 힘으로 대응하기를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52.

이러한 명령에 따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병역을 거부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현대에도 여호와의 증인은 나치 정권 치하에서 혹독한 박해를 인내하였습니다. 에버하르트 뢰른은 저서인 「평화를 위해 죽다」(Sterben für den Frieden)에서 “독일에서만 약 6000 내지 7000명에 달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병역을 거부하였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나치 독일에서는 최소 270여 명의 증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대안 제공을 촉구한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결정

4회

사회 통합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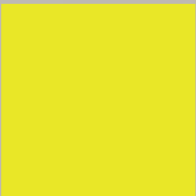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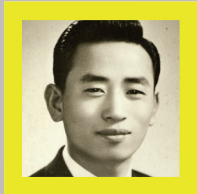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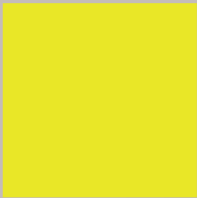
“사회 통합 및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양심에 따른 신념 및 그 표명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 통합 및 안정적 다원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위원회는 국민 개병제 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의무 군 복무를 하는 자와 대체 복무를 하는 자 사이의 불공정한 불균형을 제거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 보편적이라고 본다.” - *윤여범·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1321/2004 및 1322/2004, 2006. 11. 3.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채택한 견해

사회에 대한 진정한 봉사

“국가는 원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군 복무에 대한 민간 대체 복무를 강제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복무는 군의 영역 밖의 것이고 군의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 대체 복무는 징벌적인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되어야 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 -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 사건번호 1642-1741/2007, 2011. 3. 24.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채택한 견해

정부의 의무

“[자유권 규약]에 따라, 당사국은 청원인들에게 그 전과 기록의 말소 및 적절한 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규약 위반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양심에 따른 거부권을 보장하는 입법적 조치의 채택이 포함된다.” -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1786/2007, 2012. 10. 25.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채택한 견해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Korea